

남원시-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, 스마트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



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스마트팜 확대보급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2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.

이날 협약식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, 양 기관 업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청에서 진행됐으며, 협약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한 상호협력 및 청년농 모집, 설계·시공·감리 시 상호 유기적인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.

남원시는 지난 9월1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농생명산업지구에 선정돼 47.1ha 규모의 ECO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이곳은 스마트 생산, 가공, 유통, R&D 집적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,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문화·관광·체험이 어우러진 미래농업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.

남원시 관계자는 "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스마트팜 단지가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/남원=박영규 기자

전북을 바꾸는 힘! 새전북신문 *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지면 : 2024-09-25 17면

<http://sjbnews.com/828158>